

전주, 지속가능 자립도시로 나아간다

공동체 복원 통해 에너지·식량·경제·문화 자립 체계 구축

전주시에너지와 먹거리, 경제, 문화에 이르기까지 지역 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자립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다.

자립도시로 만든다는 것은 자급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지속가능한 도시, 즉 독립도시를 실현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에너지 자립의 경우 기후변화와 에너지위기로부터 자유로운 전주를 만들기 위한 에너지독립(자립)운동인 '에너지 디자인 3040'이 펼쳐지고 있다. 오는 2025년까지 에너지 자립률을 30%, 전력 자립률을 40%까지 달성해 에너지자립 문화 도시 전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절약과 효율 △분산과 생산 △참여와 나눔 △교육과 문화 △상생과 통합 등 5대 전략과 30대 과제를 추진기로 했다.

특히, 에너지 문제 극복은 소비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배관다형 태양광 보급, 시민

햇빛발전소 건립과 관련 협동조합 운영 등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주시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토대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교체에 비롯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갖추 나갈 방침이다.

식량 자립의 경우, 전주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시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지역 내 식량 생산·소비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먹거리 주권을 회복하는 동시에 지역순환경제구조를 만들어 전주독립경제로도 이어진다.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고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으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건강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민·관커뮤니티 조직인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먹거리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종합안정망을 만

들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의 직매장 운영은 물론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에 학교 급식으로 전주푸드를 공급하기로 했으며, 향후 사회복지시설 등에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자립의 경우, 지역 내 선순환 경제 구조를 갖추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우선, 각종 공사 발주 시 공정과 품질상 문제가 없는 한 분리 발주하고, 지역에서 생산·판매하는 물품 구매를 적극 실행하고 있다. 또 공공도서관의 도서관역시 입찰 참가자격을 동네서점으로 제한하기도 했다.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향토기업에 대해서는 기술개발과 판매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키울 수 있는 기업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나아가, 기업 기(氣)살리기와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성장사다리사업 등을 통해 기업을 키워 향토경제를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또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청년상상놀이터도 운영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미소 띤 독립경제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지역공동체 복원, 도시재생 활성화 분야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마을공동체 사업인 전주형 운두레 활성화사업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전주는 가장 인간적인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전주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큰 방향은 공동체 복원을 전제로 한 식량 자립, 경제자립, 에너지자립, 문화 자립 등의 지역화"라며 "우리가 사실 물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우물을 파는 심정으로 지역화를 통해 부유하지는 않지만 행복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는 '전주 원도심 숭문화 교류학교'를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술' 통해 전주 원도심 도시재생 모색

'숭문화 교류학교' 상인커뮤니티교육 진행

전주 원도심에서 '술'을 매개로 한 상인커뮤니티교육이 시작됐다. 도시재생과 문화적 접근에서 술을 중심으로 놓고 상인커뮤니티교육이 진행된 것은 전주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시는 술을 취급하는 원도심 술집과 카페, 밥집 주인장들과 원도심에서 술을 통해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 일반시민들과 함께 전주의 술 문화를 들여다보고 '전주 원도심 숭문화 교류학교'(이하 전주술학교)를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10월 17일까지 매주 화요일(9월6일만 수요일) 오후 2시~4시 모두 8차례에 걸쳐 남부시장 정년물 청년회관에서 진행되는 '전주술학교'는 다양한 전주의 술 문화에 대해 배우는 주제 강의와 교육생들이 서로의 사업노하우를 공유하고 술을 매개로 한 협력사업 등에 논의하는 토크콘서트, 네트워크 심화회

크숍 등으로 진행된다. 6일 진행된 세 번째 숭문화학교에서는 이강민 전북대학교 분자생물학과 교수가 강사로 초청돼 술의 발효와 관련해 대해 학습할 수 있는 '와인과 발효학'을 주제로 강의했다.

시는 오는 12일 진행되는 4강에서는 '양조의 모든 것'을 주제로 한 유상우 술로시티 대표의 주제강의를 통해 전주 원도심 일대 양조장의 근현대 이야기를 들춰내고, 도시양조장과 시골양조장에 대한 비교와 최근 소규모 양조장의 등장 등 새로운 숭문화 트렌드 등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교육생들이 서로의 사업노하우를 공유하고 앞으로 원도심에서 술을 매개로 공동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협력사업 등에 논의하는 토크콘서트, 네트워크 심화워크숍 등이 진행된다. /김민근 기자

완산경찰, 다문화 무료 심리상담

완산경찰서는 지난 4월부터 가정폭력, 정착 어려움, 따돌림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호소하는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사 5명이 무료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미움앳'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문화 언어 등의 차이로 인해 심리적 불안과 새로운 사회와 가족에 대한 적응에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은 심리상담센터나 병원을 찾기 힘들어 상담과 치료를 받기가 힘들뿐더러 가정폭력, 따돌림 등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움앳' 프로그램은 이렇게 불안함을 호소하는 결혼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무료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일례로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던 베트남 이주여성 A(23세)씨는 지속된 폭행으로 신체 뿐만 아니라, 심한 심리적 불안감과 남편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약 2개월간의 무료 심리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남편의 진실된 사과를 통해 다시 행복한 결혼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상민 기자

'한국의 꽃심 전주 표준시안' 업무표장 등록

전주정신 확산시켜 도시 정체성 확립·도시 브랜드가치 높이기 위해

전주정신인 '한국의 꽃심 전주'를 나타내는 BI(Brand Identity)가 특허청 업무표장으로 등록됐다.

전주시는 전주사람들이 지난 1300년 동안 지켜온 정신문화인 전주정신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전주정신인 '꽃심'의 표준시안(BI)에 대한 특허청 업무표장 등록을 최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업무표장 등록은 시가 전주정신을 확산시켜 안으로는 도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밖으로는 전주만이 가진 오랜 역사와 훌륭한 문화를

곳곳에 알리며 전주만의 도시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함이다. 나아가, 전주가 세계적인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시는 이번 표준시안 등록을 위해 지난해 8월 특허청에 업무표장을 출원했으며 1여년간의 심사 끝에 최근 표장 등록이 결정됐다.

이에 대해 이철수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이번 꽃심전주 표준시안 업무표장 등록이 시민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며 "한국의 꽃심 전주가 그 이름만으로도 믿음과 신뢰를 주는 세계적인 도시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정신 '한국의 꽃심'은故 최명희 작가의 '혼불'에서 자신의 고향인 전주를 꽃심을 지닌 땅이라고 칭찬한 데서 착안한 전주인의 공동된 정신으로, 시는 약 1년 6개월의 연구 끝에 지난해 6월, 꽃심을 전주정신으로 선포하였고 전주정신 '꽃심'에는 △대동 △풍류 △울골음 △창성의 특질이 담겨져 있다. /김민근 기자

완산 삼천지구대,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제 홍보

완산경찰서 삼천지구대는 6일 삼천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제 관련 홍보 및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9월부터 주민밀착형 순찰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했다.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제는 경찰 위주의 순찰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순찰회방시간과 지역을 주민이 원하는 곳으로 정하는 치안서비스로 앞으로 주민체감 안전도

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호봉 삼천지구대장은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에게 공감받을 수 있도록 삼천지구대는 치안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횡령하려고 거짓납치 신고한 50대 구속

횡령하려고 경찰에 거짓으로 납치 신고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6일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양모(52, 남)씨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7월 13일 지인인 A(62)씨의 심부름으로 현금지급기에서 130만원을 뽑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민 기자

다. 그는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빼낸 후 피한에게 납치당해 폭행을 당하고 현금을 빼앗겼다고 경찰에 거짓신고

를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양씨가 자작극을 벌인 것을 알아채고 양씨를 체포했다. /이상민 기자

보행자 2명 사망케 한 버스가사 입건

완산경찰서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시내버스 기사 김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전날 오후 8시 4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A(61)씨 등 2명을 버스로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

를 받고 있다. A씨 등 2명은 사고 직후 119구급대가 출동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김씨는 "도로에 갑자기 사람이 나와서 멈추려 했지만 비가 와 미끄러졌다"고 진술했다. /이상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or.kr *전자우편 : jvs@hanmail.net